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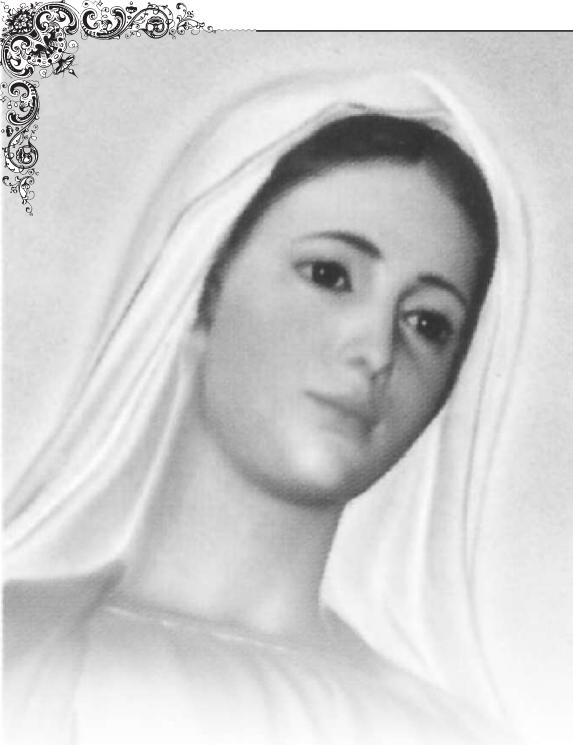
# 메주고리예



Medjugorje

September, 2007 제40호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회개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삶이 미움과 불충실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기도가 너희 삶이 되게 하여라.  
그래야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에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너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 자비에서 멀어져 있는 너희는 회개하여라.  
그래야 하느님께서 너희 기도에 귀 기울이실 것이고,  
너희의 회개가 결코 늦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은총의 시기에 회개하고,  
하느님을 너희 삶의 첫 자리에 모셔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7년 8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순교자들께 드리는 기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목숨을 바치신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이시여  
  
선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굳은 신앙으로 힘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피를 흘리며  
남김없이 그 분께 자신을 봉헌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게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마리아님과 함께  
하느님께 자비를 구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103위 순교성인들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모승천 대축일 아침기도 찬미가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선교회의 신부님들과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 어머니 마을과 봉사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원님들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불쌍한 연옥영혼을 예수님과 성모성심께 봉헌합니다.
- 성모님, 000형제와 두 자녀들을 봉헌하오니 늘 보살펴주소서.
- 성모님, 000 베드로가 마약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엄마의 신장이식수술을 무사히 하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사랑하는 딸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죄인들의 회개와 불쌍한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남편 바오로의 폐암을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저희 가족을 당신의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시어 도구로 써 주소서.
-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밝게 커 갈 수 있도록 기도드려주세요.
- 주님의 품안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 냉담증인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소서.
-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 성모님, 저의 두 딸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 돌아가신 사랑하을 부모님이 천상에서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 모든 부부들의 일치로 가정의 평화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 온인류의 평화와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당신께 봉헌된 사업체를 돌보아주시어 예수님의 충실히한 도구로 써주소서.
- 성모님, 두 동생들과 아버님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세요.
- 부모에게 버림받은 낙태아이들의 영혼이 성모님의 품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 성모님, 첫 영성체를 모시는 안젤라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딸로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 모든 아픈 환자들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 자살한 불쌍한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 평화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 성모님, 엄마에게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성체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 수도원에 입회하신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은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000이 돌아오게 해 주시고 00 레지오 단원으로 충실히 살게 해 주세요.
-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하느님 곁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모든 이들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사랑하는 세 아들들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제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커네티컷 공동체와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들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온갖 장애로 고통증에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투병중에 있는 Nina Kendal와 Steven, Andrew, James, 최젬마, 이루시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19년간 한국 선교하시고 평생을 주님의 사제로 헌신하신 원신부님, 허신부님, 경신부님, 김수창신부님을 비롯한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필요한 은총을 기도합니다.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도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10월 메주고리예 순례때와 요조신부님께도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르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 조상들의 신앙대로 살아감으로써 나의 증인들이 되라고 너희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표징과 메시지를 찾으면서도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을 바꾸어, 진리와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은 알지 못한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말은 많이 하지만 회개하기 위해서는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어 말보다는 너희 삶으로써 내 메시지대로 살기 시작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그래야 너희는 진심으로 너희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할 힘이 생길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98년 9월 25일 메시지)

성모님께서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님의 메시지 묵상과 해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매일 기도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부르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너희 조상들의 신앙대로 살아감으로써 나의 증인들이 되라고 너희를 부른다. : 우리 선조들은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으로 엄청난 고통중에서도 굳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물질만능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삶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과학 문명의 혜택을 받는 이 세상에서 먼저 복음전파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들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지 않고 가족들은 더 이상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는 자녀들의 약한 믿음을 한탄하며 잃어버린 신앙을 찾아주고자 하여

## **우리는 미약하지만 먼저 마음의 변화를 결심하고 기도하며 단식할 때, 하느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들이 성모님의 말씀대로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중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안에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실천하는 삶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믿음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너희는 표징과 메시지를 찾으면서도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하느님께서 너희 마음을 바꾸어 : 성모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께서 매일 주시는 표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들은 우리들을 변화된 삶으로 부르시는 성모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치 아침 해가 뜨면서 한밤의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들의 변화에는 세상으로부터 떠나 자신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매일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진리와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 우리가 진리와 구원의 길로 가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과 파멸의 길에서 떠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사도이시며 길이시고 빛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을 향한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회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두 가지의 선택이 요구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죄와 모든 악습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것에 앞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다해도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먼저 선택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장하며 치유될 것입니다.

**너희는 말은 많이 하지만 회개하기 위해서는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 성모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먼저 땅을 기름지게 가꾸는 농부들처럼 우리도 먼저 자신의 마음**



을 가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마음의 내면 깊은 곳까지 살펴보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삶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뿌리 뽑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여러분은 피로써까지 악과 죄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변화에 대하여 말하는 것보다 변화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에 익은 나쁜 습관들과 죄를 인정하면서 지속적인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어 말보다는 너희 삶으로써 내 메시지대로 살기 시작하여라 :**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향한 변화, 기도, 단식, 믿음,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중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랑과 거룩함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매일 성서를 읽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묵주기도(환희, 고통, 영광)와 가능한 한 매일 미사에 참석하면서 매달 고백성사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말로써가 아니라 삶으로써 나의 메시지를 살아가기 시작하여라"라고 하신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야 너희는 진심으로 너희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할 힘이 생길 것이다 :**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심할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먼저 마음의 변화를 결심하고 기도하며 단식할 때, 하느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진실된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되지 못한 변화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신의 체험과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메주고리예의 순례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번에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마음은 진실된 변

##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신앙인의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화라고 말할 수 없으며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몸에 배인 모든 사악한 악습과 죄의 유혹에서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우리를 놓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와 평계를 말하면서 쉽게 지쳐서 포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과 매일 실천하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기도와 미사 참례 등을 결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새 잊어버리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까? 하느님께 회심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미사 참례, 고백성사, 단식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 향한 사랑과 신뢰안에서 그분과의 일치를 체험하는 기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깊은 평화 안에서 우리를 치유해주시며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이 시기에 당신의 겸손한 종 성모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조들의 신앙을 살아가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성모님과 함께 청합니

다. 저희가 표징과 메시지를 찾으면서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기적에 대하여 장님이 되어버렸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 당신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이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거짓들로부터 해방되어 진리와 구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성모님을 통하여 매일 저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오, 아버지! 저희 자신의 변화에 지치지 않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당신께 단지 저희의 입술로 말씀드림을 용서해 주시고 깊고 진실한 마음의 변화를 주시기를 성모님과 함께 당신께 청합니다. 이 변화의 길에서 저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모든 죄와 나쁜 습관들, 마약, 술 등의 쾌락에 중독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들이 당신께로 향하기를 결심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새로운 힘을 주소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선조들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모든 병자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M**

1998년 9월 26일 메주고리예에서



## 성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사제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엄마의 부름에 응답하여, 내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업'의 충실한 봉사자들이 되어라. 너희에게는 세례 성사를 베풀고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갈바리아에서 완성된 '희생 제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고,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사들'을 통해 은총을 분배하는 소중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 세상의 온갖 죄를 씻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성혈'이 다시 흘러내리게 하여라. 날마다 사랑과 비통함에 잠겨 생명의 깊은 합일에 참여하면서 '희생 제사'인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여라. '미사 성제'는 세상의 허다한 악을 들부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성심'으로 너희의 형제들이

## 구원사업의 봉사자들

1983. 9. 3. 밴쿠버 (캐나다). 이달 첫토요일



며 내 자녀들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라.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갖가지 위험을 무릅쓰 채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마르 6:34, 민수 27:17, 애제 34:5 참조) 세상 길을 걷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 상처 입고, 악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중오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지! 게다가 가난한 이들, 착취 당하는 이들, 힘없는 이들, 고통 받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자녀들의 고통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필사적인 절규처럼 내게 다가오면서 '엄마의 마음'을 미어지도록 아프게 한다. 세상 어느 길에서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엄마의 자비로 가장 곤궁한 처지에 있는 내 작은 자녀들을 도와 준

다. 멀망에 떨어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병자들에게는 건강을,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실망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준다. 죄에 떨어진 이들은 일으켜 세우고, 길잃고 혼매는 이들은 찾아낸다. 지금은 너희 천상 어머니의 티없는 성심이 개선하는 시기요, 하느님 자비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너희를 통해 활동하고 싶다. 이것이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고 너희 모두에게 당부해 온 이유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사업'의 완전한 봉사자가 되게 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이루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이 도시에서 나는 너희 모두가 내 계획에 응하도록 부르고 있다. 이 계획은 날이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리니, 교회와 세상은 하느님 '자비'의 더없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될 것이다. █

(이 메시지는 파티마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년부터 1997년까지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사람들은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결실들이 드러나는 산과 들녘을 바라보며 자신을 차분이 정리하고픈 마음을 갖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9월 8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9월 15일) 그리고 '묵주기도 성월' (10월)의 기원인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10월 7일)을 통해서 복되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 살아온 날들의 결실을 묵상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인이 죽은 날, 곧 천국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세례자 요한,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탄생일을 기억합니다. 한 분은 구세주이시고, 한분은 구세주가 오심을 알리는 선포자이시며, 한분은 구세주를 임태하신 어머니이십니다. 즉, 구원의 사건에서 육화의 신비와 관련된 분들입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복음서에서 언급이 되지만, 마리아의 탄생은 복음서가 아닌 외경 '야고보의 원복음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은 5세기에 예루살렘 연못가의 요아킴과 안나의 집터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진 곳에 세워진 '성녀 안나 성당'을 순례자들이 찾아와 마리아의 탄신을 공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9월 8일이라는 날짜는 처음에 교회를 봉헌한 날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동방 교회의 전례력을 시작하는 달인 9월 초에 구원 시기의 여명인 마리아



윤 종식 디모데오/ 의정부 교구  
전례학 박사 과정 로마유학/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의 탄신을 기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하튼, 9월 8일은 나중에 마리아의 임태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기념하게 되었음을 마태 1:1-16, 18-23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룩하게 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이라 예언한 미카 5:1-4의 신탁이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께서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의 구원에 결정적인 시작을 하게 했다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환호를 올릴 일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탄생이 인류를 새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마리아의 탄신도 이러한 구원 역사에 중요한 바탕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모 마리아의 탄신을 기억하고 이 탄신을 통해 구원 역사를 펼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깊은 모성애로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의 지상 여정을 함께 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아드님의 십자가 밑에서 고통 받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처음에는 시토회 수도자들 (12세기), 다음에는 프란치스코 수도자들 (13세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신심의 배경은 특히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특별히 공경하던 당시의 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후, 14세기와 15세기에 '마리아의 종들' 수도자들에 의해 '일곱 가지 고통'으로 규정된 고통 중의 마리아에 대한 신심으로 발전, 확산되었습니다.



1482년 교황 식스토 4세는 '피에타의 성모님'이라는 제목으로 미사경본에 삽입할 마리아 미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1969년에 개정된 전례력에서는 9월 15일을 '기념일'로 지내도록 하면서 그 제목을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고통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아드님을 잃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입당송은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던 날 시므온이 동정녀에게 한 신비로운 예언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루카 2:35). 마리아의 고통은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우신" (제1독서 히브 5:7-9 참조) 그리스도의 고통과 동일합니다. 요한 19:25-27에 묘사된 장면은 우리 구원의 희생 제물이 봉헌되는 숭고한 '시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리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 계신다는 것은 주님 탄생 예고의 시간을 전제합니다. 곧, 나자렛의 마리아께서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신 것이 십자가 밑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은 예수님과 성모님에게 칼이 되어 크나큰 고통을 주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는 그 아래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신앙으로 그 시간을 지탱하였습니다.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수많은 십자가들 곁에 함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고 10월 7일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1572년 비오

5세 교황이 선포했습니다. 이는 1571년 10월 7일에 있었던 터키와 치른 레판토 해전에서 성모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승리했음을 기념하여 15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묵주기도를 드리던 것을 한 달 동안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도록 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비오 5세 교황은 1569년 묵주기도의 기도문과 형식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의 교황'으로 불리는 레오 13세 교황은 1883년 9월에 회칙 '최상의 사도적 직무'에서, 묵주기도 성월에 성당에서 공동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2년 묵주기도 성월에 성년을 선포하며, 반포한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 기도'에서 묵주기도는 평화를 위한 기도임을 강조하고,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관상기도임을 밝혔습니다.

강생에서 성령 강림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행적에 함께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힘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께 육체를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교회를 가르치셨습니다.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의 독서 (사도1:12-14)와 복음(루카 1:26-38)은 이 두 사건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성체 성사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묵주기도는 우리를 돋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복되신 마리아처럼 그분 곁에서 그분의 여정을 함께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묵주기도는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

### 사제들에게 진정한 가족은 신자들입니다 수련기와 대신학교 시절

사브리나꼬비치 (남기옥 마르타 역)



질문 : 사제가 되겠다는 생각에 의심을 가진 적은 없었는지요?

요조 신부 : 없었습니다. 대신학교는 신학생들에게 성숙의 과정으로써 여러 학문을 터득 하여 세상의 참 모습과 성소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문제는 심각해지겠지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질문 : 신학 공부를 하실 때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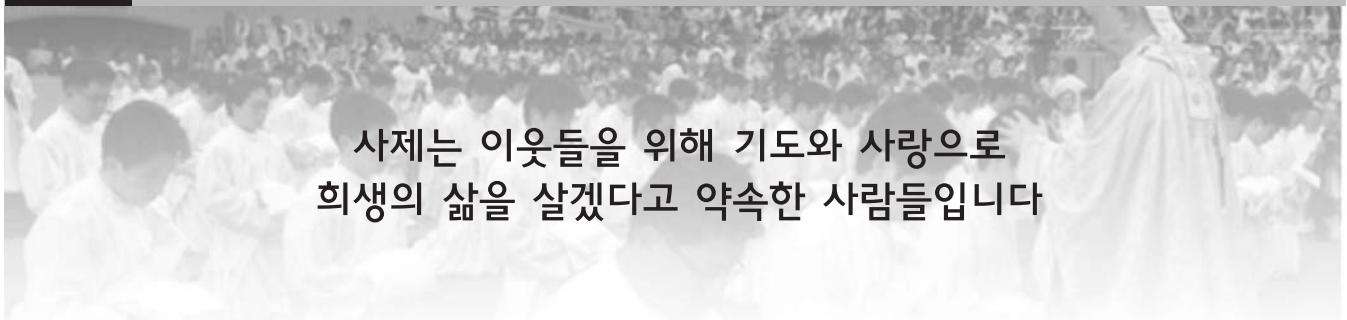
요조 신부 : 저는 없었지만 공산당원들 때문에 학교에는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러나 신학원 원장신부님과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학과정은 어떤 학교보다도 우수했으며, 미래의 사제와 수도자로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학교 규정은 스파르타식 교육이어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노력과 수준을 요구해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용서나 관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엄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저희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정립되지 않으면 종신서원이나 부제, 사제직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의 미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 고해 사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 :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회는 어떠했습니다?

요조 신부 :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언어로서 모든 교회 문헌들과 신문, 편지 등에 사용되고 있었던 라틴어에 대한 변화는 충격이겠지요. 그런 면에서는 2차 공의회는 신학관념에 자유를 주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황 요한 23 세의 평화 교서는 전 세계 주교들의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은 연구 단계라서 세상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는데 교회의 개념과 다른 방식을 논하면 파문을 면치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차 공의회가 쟁점화되던 전례와 계시, 성사들과 교회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만들자 어떤 이들은 사제직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했지요. 생각과 사고의 자유는 교회나 신학에 대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루터교와 성공회 등의 각자의 다른 시각과 종교일지라도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질문 : 그 때 신학교의 분위기를 말해주시겠어요?

요조 신부 :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회의에서 돌아오시면 무척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셨지요. 저희 세대에 공의회의 개혁이 적용되어야 했는데 교수님들도 많은 의문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2차 공의회가 끝나자 수 천 페이지가 넘는 문헌들이 쏟아졌습니다. 수 많은 신학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주교님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 했지만 막상 새로운 교리와 법에 투표를 한 것은 주교님들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의회의 첫 회의에 참석하셨던 2000명의 교부들 중, 1030명 혹은 1050명 정도만이 찬성을 했는데 공의회 이전에는 이런 투표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성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한 이론 제기나 반론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에 얼마나 큰 변화와 쇼크를 주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 사제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희생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질문 : 그런 변화 속에서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으시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요조 신부 : 그럼요! 아주 황홀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주일이었고, 장소는 사라예보에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이었습니다. 진짜 멋지고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사제가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 날 성당은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이 참석해서 터져 나갈 것 같았어요. 22명의 서품자들은 모두 특별한 옷을 입고 제대를 향해서 성당 바닥에 길게 엎드려 있었고 성인호칭기도가 울려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뒤 마르꼬 요지노비치 대주교님께서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하시면 우리는 라틴어로 대답했는데 이 예절은 공의회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어나서 제대를 향해 올라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교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제 양손에 성유를 발라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저를 사제로 서품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유가 발라진 두 손을 모아서 흰 아마포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서품 미사에 참여한 모든 사제들은 아마포로 감싸인 서품자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며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공동집전하는 미사가 거행 됩니다. 주교님과 모든 사제들과 수 많은 회중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품을 받기 위해 제대 위로 올라갈 때는 한 사람의 수도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제대를 내려올 때는 하느님의 외아들이 신 예수님께 기름부음 받은 사제가 됩니다. 오, 대사제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당신 사제직의 일부를 선물해 주시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제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모든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질문 : 첫 미사를 봉헌하실 때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요조 신부 : 1967년 8월 6일, 제 고향인 우짜릿치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제의를 입고 저희 집에서 행렬을 시작해서 성 안토니오 성상 앞에서 끝났습니다. 어린 이들은 젊은 새 신부인 저에게 인사를 했고 어떤 이들은 기쁨에 겨워 울기도 했습니다. 성당 안에는 저의 가족들

과 마을주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스피커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제로서 이웃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희생의 삶을 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이 예식이 끝나고 부모님과 형제들은 제 고향집에서 큰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아마도 천 여명 정도가 초대된 것 같아요! 그때 제 동일인 친구가 두 명의 아프리카 친구들을데리고 왔습니다. 아이쿠… 그때 난생 처음으로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본 마을 꼬마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질문 : 신부님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제로서 가족들과는 잘 지내셨나요?

요조신부 : 첫 미사를 봉헌 한 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슬로베니아의 류비아나로 떠났습니다. 사제가 된 후, 교회가 내 집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고 내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집과 가족을 떠난다는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마태오 8:19-22, 루가 9:57-60 참조)사제들에게 진정한 가족은 신자들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와 형제, 친척들이 있지만 사제는 그들보다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야 합니다. 또 본당의 주임으로 임명되면 그 본당의 신자들이 제 가족이지요. 저는 사랑스러운 어린이들,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기도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질문 : 당시 신부님의 성모신심과 기도생활의 일과는 어떠했습니까?

요조신부 : 류비아나의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는 기도생활이 상당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성체성사에 관련된 성인들의 삶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 했습니다. 그런 책들은 저에게 강론의 위대함과 힘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프란치스칸 고유의 기도인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면서 성모님 생애에 대한 일곱가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한편으로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로, 또 사제로서 수 백명씩 찾아오는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 알고싶어요(7)



### 평화, 평화, 오직 평화만을!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과 핵심 메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시애틀의 젬마)

신경남 / 카프친 프란치스코 수도회  
종교 교육학 박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지난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 호에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이 전해주시는 핵심메시지들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1981년 6월 24일부터 26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메주고리예에 발현하고 계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6명의 발현목격증인들에게 당신은 '평화의 모후'이시며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도 매일 발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는 1984년 3월 1일부터 발현목격증인 마리야 파블로비치를 통해 매주 목요일에, 1987년 1월부터는 매달 25일에 메주고리예 본당 신자들과 온 세계에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로 시작하여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말로 끝맺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모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수 없이 들어 온

내용들, 더 이상 특별하거나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들을 다시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잊어버리고, 구원과 성화의 길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머니가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듯이 만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전 인류가, 메시지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평화속에 살며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메시지에는 우리를 거룩함과 평화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모성애 넘치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평화의 모후께서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단호한 언어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당신의 메시지를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부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1891년 6월 24일 이래 지금껏, 메주고리예에서 매일 발현하시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성모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많은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기도

무엇보다도 먼저 성모님께서는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 인간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생기를 잃고, 하느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다. 또한 기도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을 키워주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기도를 삶의 첫자리에 두고, 기도가 삶이 되고 기쁨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권하시면서 미사, 묵주기도, 성 경읽기, 성체조배, 성시간, 십자가의 길, 화살기도 등 여러 형태의 기도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루 세시간 이상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묵주기도는 단순히 반복되는 차원을 초월하여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지극히 복음적인 관상기도이다.

## 2. 신앙

성모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성모님께서는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물질만능의 무신론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인류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며 오직 그분만이 참된 구원과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살아 계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때문에 목숨을 바쳐 하느님을 증거한 거룩한 순교자들을 상기시키며, 오직 하느님만을 굳게 믿으라고 초대하고 계시다. 또한 물질과 피조물에 매이지 않고, 사탄의 모든 악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느님만을 섬기기 위해 강한 믿음을 지니

라고 권고하신다. 신앙은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며 신앙은 기도를 통해 더욱 강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더 큰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 3. 회개

회개 역시 성모님 메시지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메주고리예를 통해 주시는 성모님 메시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인류를 하느님의 구원과 평화로 인도하는 것이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는 평화의 왕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예언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사명은 우리가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돋는 것이다. 하느님의 구원과 평화를 얻고, 예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실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회개이다. 회개의 첫걸음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했다는 증거로 먼저 매월 고해성사를 보도록 초대하시면서 죄로 인해

가리워지고 닫혀졌던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도록 도와주고자 하신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먼저 변화되지 않고서는 삶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매일 매 순간의 회개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악에 빠뜨려 멸망의 길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

## 4. 단식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지 곳곳에서 단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식은 죄를 보속하는 외형적 표현이며,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단식은 우리의 모든 생





하느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참 평화를!

명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이며, 이웃에 대한 애 덕의 실천이기도 한다. 단식은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우리를 해방하며, 모든 형태의 중독과 노예 상태, 특히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또한 전적으로 하느님께만 의지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고 있다.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포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단식을 통해 하느님만을 선택하고 의지하며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성모님께서는 기도와 단식을 통해 자연의 법칙도 바꿀 수 있으며, 전쟁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기도하고 단식하는 사람은 미래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성모님의 메시지는 사탄의 끊임 없는 유혹속에서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 5. 평화

평화의 모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성모님께서는 발현 셋째 날, 즉 1981년 6월 26일 메주고리예에서의 당신의 첫 번째 발현지인 포드브르도에서 여섯 명의 아이들에게 나타나신 후 산을 내려가던 마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화, 평화, 오직 평화만을!" 그때 마리야는 성모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다. 성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 이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십자가의 수난과 모진 고통중에 피를 흘리시며 하느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하시어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에페 2:13-14 참조)를 의미한다. 영원한 참된 평화는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기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도께서 이루하신 그 평화를 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의 길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마태 5:9 참조) 평화를 이루는 길은 무력이나 재물 축적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강조하신 기도, 신앙, 회개, 단식이다. 이것은 참된 평화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이며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다. □

(다음 호에는 6명의 발현목격증인들이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와 그들의 사명이 연재됩니다.)



# 왜 화해하지 못하나 …

폐제공동체의 창설자 로제 수사



그대는 화평과 화해의 길을 열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속합니까? 그대는 인류 가족 안에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뢰의 길을 닦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선물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성령의 선물은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1940년 폐제 공동체를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서로 갈라지고 일치와 친교의 공동체인 그분의 교회를 분열시키기에 이르는가?"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해가 너무나 긴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힘을 다해 작은 남성공동체를 시작하자. 몇몇 형제들이 모여 매일 신뢰와 화해를 살아가도록 애써 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 수사들은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을, 나아가 온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려면 스스로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해와 신뢰를 추구하려면 먼저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크고 오래 가는 것치고 쉽게 세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해의 정신은 그냥 순진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관대하고 인자한 마음이며 의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20세기 중엽,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분(요한 23세 교황)이 그리스도인들의 화해에 대해 분명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9년 1월 그분은 공의회 개최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화해합시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다. 혓된 희망은 실망과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체없이' 화해하라는, 마음 속에서 사랑으로 화해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 부르심보다 더 밝은 빛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를 가로막으려 하겠습니까? 화해는 결코 천천히 이를 일이 아닙니다. 복음에 따르면 화해하는 사람은 당장 움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상황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권위로 말하는 은총을 지녔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는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합니까? 복음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그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할 때, 우리의 기도는 혓된 것이었나요? 그렇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하느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그들 안에서 무언가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받고 수모를 당했지만, 자신의 마지막 힘까지 다해 용서하고 거듭 용서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사랑의 극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 없겠습니까? 용서하는 사랑이 야말로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대의 용서가 거부당했나요? 냉대와 거부만을 겪게 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일곱번씩 일흔 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용서함으로써 그대는 이용당하는 것같이 느껴집니까? 그대에 대해 누가 이런 계산을 하는가요? "난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신자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나를 용서하고 말겠지." 용서하는 사랑을 지닌 사람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받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 날의 상처가 되살아날 때, 그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밝혀 주시는 주 예수님, 주님은 이 세상을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당신을 통해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화해시키려 오셨습니다.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불처럼 타오를 때면, 시련으로 아픈 마음조차 다시 생기를 얻게 됩니다." **M**



##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하느님의 식탁에 초대합시다

평양에 라면 식당을 개설하고 돌아와서 …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동포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제가 북한선교를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돋기 위해 15년이 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실효성이 있었던 일은 국수 공장을 설립하여 집단농장이나 광산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남한이 6.25직후에 미국 가톨릭 구제회의 도움을 받아 끼니를 잊기 어려운 이들에게 국수를 식량으로 제공했던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처음 국수공장을 설립할 때 저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우리 식탁에 초대하자'라는 취지로 시작하여 국수 한 그릇에 16전의 비용으로 6년동안 매월 60여만 그릇을 동포들의 식량으로 공급했습니다. 이제 라면식당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하느님의 식탁에 초대합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북한의 형제자매들도 하느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날이 꼭 오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가난한 시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 1불로 북한 동포 세 사람을 하느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룩한 사명에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생애를 북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07년 9월 순교자 성월

1) 라면식당 운영방식 : 라면 식당은 라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반 식당의 식단에 라면을 한 품목으로 추가해서 특별한 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됩니다. 이것은 기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북한측 회사의 도움을 최대한 활용한 것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인건비를 절약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라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와 노인으로 제한하고 소개형식으로 초청되는 노인들과(65세 이상) 어린이들(12세 이하)에게 우선적으로 라면을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 연락을 하면 올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특별히 선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충당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곳에 라면식당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이들에게 라면을 제공하고 싶지만 아직은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라면 식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고려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2) 라면의 종류 :** 한국이나 중국에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라면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강사부"라는 중국산 라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라면처럼 좋은 품질은 아니지만 북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 중의 하나는 식량이 부족한 북한 동포들에게 꼭 필요한 지방질이 많다는 것입니다.

**3) 동포들의 반응 :**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곳 노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고 조금은 낯설어하는 굳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동년배인 할아버지가 계셔서 서로 반갑게 얘기를 나누며 허물없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라면을 먹은 참석자들은 모두 만족한 표정이었으며 200그램 짜리 라면을 남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4) 예상인원 :** 하루 식사 인원은 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의 식당에 한 달에 총인원 15,000명에게 먹일 라면을 중국 단동의 공장에서 기차편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운영단계이므로 매달 운영되는 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추가 할 것입니다.

**5) 앞으로의 계획 :** 현재 운영되는 라면 식당의 잇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각 지역의 도시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특히 식량문제가 시급한 산골과 농촌마을에 기존식당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라면 전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관계자들과 논의했습니다. 현재는 원산과 함흥을 비롯한 라면식당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라면 식당을 확산하고자 하는 이 모든 계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이므로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 식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다음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M

재미 한인 가톨릭 선교 후원회 (FKACM)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땅 끝까지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후원회원들에게는 정기적인 재정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대 표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자문사제단 : 조민현 요셉 신부 / 조 후연 야고보 신부**

**김정수 디다고 신부 / 박홍식 돈보스코 신부 /  
이경 바오로 신부**

**미국 : FKACM (재미 한인 가톨릭 선교 후원회)**

**Make check payable to PO BOX 598 Orange, NJ 07051**

**☎ 973-672-6335 / 800-453-4078**

**한국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 전화 : 011-9261-0924**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90-1**

**가톨릭 대학교내 지혜관 (김득권 신부방)**

**계좌번호 : 1002-029-953355**

**예금주 : 박창득 (우리은행 혜화동 지점)**



## 성시간



예수님,  
모든 성인들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메주고리예 야고보 본당의 야외 성시간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신부 옮김

1) 예수님이 생명과 거룩함의 샘이신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예수님, 모든 성인들의 사랑이신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예수님, 구원된 모든 이들의 희망이신 당신을 믿나이다!

2) 예수님이, 오늘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이들, 영광스러운 천상 교회, 연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전투 중에 있는 지상의 교회와 더불어 당신을 흠숭하고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모두를 위해 목숨을 주셨으니 당신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대사제이시나이다. 당신은 영광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십니다.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의 사랑에 잠긴 모든 이들 그리고 그 끝없는 사랑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의 사랑이십니다. 저는 이제 온 교회와 함께 당신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앙으로 당신을 증거하고 그들의 수고를 다하고 쉬고 있는 모든 성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당신께서는 그들의 바위, 요새, 힘이셨나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그들이 싸운 훌륭한 전투의 지휘관이셨고, 어둠

속에서 그들의 참된 빛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 참으로 충실하고 대담한 당신의 군사들이 당당하게 싸웠던 성인들과 같이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금으로 된 승리의 관을 씌워 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 복된 통공이여! 거룩한 친교여! 저희는 힘없이 투쟁하고, 그들은 영광 속에 빛나고 있나이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당신의 것이옵고, 당신 안에 하나이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고 투쟁은 거세지고, 전쟁이 길어질 때, 저희는 멀리서 승리의 노랫소리를 듣고, 저희의 마음은 다시 용감해지며, 저희 팔은 강해지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황혼이 서쪽에서 비춰오나이다; 충성스런 전사들은 이제 곧 안식을 누리나이다. 복된 천국의 고요함은 입에도 다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러나 보십시오, 더욱 영광스러운 날이 동터오고, 승리한 성인들이 찬란한 빛 속에 일어나며, 영광의 왕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땅의 넓은 데로부터, 저 먼 바닷가로부터 진주의 문을 통해 무수한 하늘의 군대가 밀려들어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노래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대사제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저는 온 교회와 함께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침묵중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바친다.)

3) 예수님, 저를 당신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초대해 주시니 당신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나이다. (...) 당신께서 약함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체험한 구원 받은 이들의 대열에 저를 불러주셨으니 제 마음은 끊임없이 기뻐합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본 그 복된 환시의 한 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묵상: 묵시록 5:11-13)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께 노래하나이다. "어린 양께서 모든 권세와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침묵중에 ...)

4) 예수님, 저는 교회의 어머니, 모든 성인들의 어머니, 천상과 지상의 모후, 모든 예언자들과 순교자들의 모후, 구원된 모든 사람들의 모후이신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당신께서는 그분을 가장 먼저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당신의 어머니가 되시며 당신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여, 저는 당신께서 저의 어머니이심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모든 성인들과 함께 당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련과 죄로 기울어지는 저의 본성적인 경향, 그리고 사탄이 저를 유혹하는 모든 함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통하여 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말씀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오늘부터 거룩하게 사는 길을 걷기 시작하도록 간청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가는 도중에 사탄이 그 길을 가로막는 일이 없기 바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주시는 쓰디쓴 것을 모두 받아들여라.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갖 감미로움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람은 하느님의 모든 부름에 기쁘게 응답할 것이다. 사소

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천국을 갈망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7년 7월 25일)

마리아여, 오늘 저는 당신과 영원한 복락에 도달한 모든 성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저의 애착과 약함, 죄스러움을 깨닫습니다. 또한 저를 유혹하는 악의 길과 속임수, 그리고 덕행으로 가는 길이 때때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언제나 저보다 먼저 한 발 앞서 가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직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함께 당신을 흠송하고,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침묵중에 ...)

5) 예수님, 저는 교회의 첫 순교자이신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저는 원수들을 사랑하면서 당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모든 이들, 경기장에서 맹수 앞에 던져지고 감옥과 강제 수용소 혹은 원수들의 칼에 기뻐하며 목숨을 버린 지난 시대의 모든 순교자들



예수님, 생명과 거룩함의 샘이신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예수님, 모든 성인들의 사랑이신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예수님, 구원된 모든 이들의 희망이신 당신을 믿나이다!

과 함께 당신을 찬양합니다. (...) 당신의 권능은 순교자들의 약함안에서 드러났습니다. (...) 그들은 지상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더욱 더 놀랍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십자가를 살고, 그것을 지며,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고통, 고난, 눈물 그리고 비탄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한 그리스도교의 씨앗으로 바꾸어주셨으니 당신께 찬미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께 충실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승리와 영광의 후광을 상급으로 주시니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예수님, 오늘 저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의 강함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순교자들의 모후이신 마리아와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고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굳은 신앙의 모범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6) 예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다가 세상을 떠나 천상의 영광에 도달한 천국의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초대를 받고 당신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행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당신을 흠송합니다. (묵상:마태 7:12)

마태오 복음사가가 자신의 복음에서 적고 있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아버지의 집에서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묵상: 마태 6:19-21)

예수님, 오늘 저는 헤어지거나 썩지 않는 축복, 지금은 천국에서 기쁨 중에 당신을 흠송하고 있는 저의 형제자매들에게 당신께서 이미 주셨던 그 축복을 쌓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저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켜주소서.

그리하여 제가 속 좁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당신을 따랐던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그 큰마음으로 향하게 하소서. (...)



예수님, 자비를 베풀고 살다가 이제는 천상 고향에 도착한 모든 이들과 함께 저는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침묵중에 ...)

7) 예수님, 저는 오늘 당신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준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거룩한 교황들과 주교들, 수도 공동체와 선교사들 그리고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과 더불어 당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당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당신의 증거자들이 되었으며 당신의 말씀을 살게 하셨으니 찬미를 받으소서. 예수님, 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침묵과 고통 속에서, 심지어 때로는 병중에서 그들의 천상 상급을 받고 지금은 당신께 끊임없이 영광을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삶의 여러가지 시련 속에서 당신의 길을 가고 있는 교황, 주교들, 사제들, 수도 공동체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백성과 교회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

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이 건조한 땅에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다고 느끼는 이들을 자비로이 굽어보소서. 그들이 당신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소서. (침묵 중에 교회의 지도자인 주교들과 본당 신부, 모든 사제들과 수도자들, 부모들을 위해 기도한다.)

8) 예수님, 당신의 면전에서 끝없이 기뻐하는 천국의 모든 성인들과 함께 저는 당신을 흡송하나이다. (...) 그들은 당신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알아 봤습니다. 또한 죄를 뉘우치고 많은 용서를 받은 이들, 자신들만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과 더불어 당신의 자비심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며 응답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찾아 용서해 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악의 권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천상 고향으로 인도해 주실 당신을 찬미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성인들의 공동체로 인도되기를 기도한다.)

9) 예수님, 저는 모든 천사들과 대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신하들과 함께 당신을 흡송하고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저는 예언자 이사야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고 싶습니다.

(묵상: 이사 65:18-19)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흡송하고 당신을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침묵중에...)

10) 축복기도: 예수님, 당신께서는 마리아와 성인들의 전구를 통하여 모든 성인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나이다. 저를 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평화와 거룩함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제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소서. 저의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소서. 고통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주시고, 격려해 주소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비추어주시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주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감사 기도로 하늘이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그 누구도 어긋난 길을 걷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성부와 함께 성령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 평화의 모후 음악선교단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1) 일시 : 매월 둘째, 세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등촌동 성당 (주례 이대수 신부) 018-373-0007

2) 일시 : 매월 첫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 마장동 성당 (주례 박명근 신부) 02-2298-5521

3)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 미사

일시 : 매달 세번째 월요일 오전 10시

(평화의 모후 기도회와 미사, 성시간)

장소 : 평화의 모후 선교회 017-785-3535



###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성모님의 품에 안으심을 묵상합시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 김훈 율리아노 옮김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서묵상 : 루카 23 : 50 – 54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태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묵상기도 :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악당들이 사정없이 내려치는 채찍질로 온 몸이 헤어지고 찢기셨으며, 머리속 깊이 박혔던 날카로운 가시판… 무거운 십자가 나무에 짓눌리어 뭉그러진 어깨… 알몸으로 벗겨져 군중 앞에 서신 수치와 모욕감… 손과 발에 대못을 대고 쇠망치로 "꽝, 꽝" 내려칠 때마다 비명을 지르신 그 아픔… 세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채 피땀을 흘리신 당신의 그 고통… 당신이 그 모든 수난을 겪으신 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영혼을 아버지 하느님께 맡기셨고 또 오른쪽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를 천국에 데리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오른쪽 강도의 진정한 통회를 허락하시어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해 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헌하시던 성모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차가운 성시를 품에 안고 봉헌하시는 성모님, 아들의 죽음에도 침묵하시며 오직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명하시던 당신께 감사드리오며 이제 저희도 어머니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잠시 무릎을 끓고 묵상한다.)

하느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성모님! 찬미와 감사 받으소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 성전에 봉헌하셨던 성모님! 찬미와 감사 받으소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처한 원수들을 용서하신 성모님! 저희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본받아 저희에게 상처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 온유함과 동정심이 부족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안으신 성모님의 품에 안아주시어 모

든 이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소서.

성모님! 세계 곳곳의 전쟁 고아들, 부모의 불화와 이혼으로 벼롭받은 아이들, 청소년 형무소의 어린 죄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아이들을 모성애 넘치는 성모님의 품에 안으시어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어머니가 되어주소서.

성모님! 태아를 낙태할 마음을 갖고 있는 임산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낙태수술을 받는 엄마의 배는 죽음이 있는 무덤입니다. 다시는 엄마의 배가 무덤이 되지 않고, 하느님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 되게 하소서.

태아가 하느님 생명의 시작임을 모르고 살인을 자행하는 젊은 부부들을 일깨워 주시어 하느님의 생명을 되찾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있는 그대로 특별히 선택했음을 이미 말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는 어머니이다. 너희가 나와 내 아드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죄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 주기를 간청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4. 5. 24)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14처로 향하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M**



## 순교자 성월기도

이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불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M**

##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제 12 차 국제 사제피정에 참여한 주교와 628명의 사제들의 체험담

\* 인도 캐를라도 아름답지만 예수그리스도의 어머니 이시고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축복을 받은 이곳은 특별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온 600여 명이 넘는 사제들이 참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피정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곳이 은총의 장소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진실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이곳에 오고 싶었지만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비자가 해결되었는데 기적 같이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 내가 메주고리예의 영성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서로 각자 다른 지역이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같은 길을 가는 목자로서 전 세계에서 온 사제들과 하느님께 봉사하는 형제애를 나누고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피정을 마치고 이곳을 떠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성모님께 속한 한 형제임을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많은 은총으로 앞으로 더욱 충실히 사제의 길을 가도록 서로에게 용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 내가 메주고리예에서 보낸 시간들은 마치 천국을 살고 온 듯한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가장 인상적

인 것은 거룩한 저녁 예절과 성시간입니다.

\* 메주고리예에 온 것은 세 번째이지만 사제 피정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서 발현하고 계시며, 이곳은 그분을 통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축복을 받은 장소입니다. 전에 다른 이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할 때는 관심이 없었으나 이번에 사제들을 위한 피정에 참여하면서 메주고리예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7월 2일 발현목격증인 미리야나를 통해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온 몸에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감미로움과 부드러움을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번 피정에서 이반치치 교수님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 강연과 성모님의 메시지가 같은 동일선상에 있음을 느끼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포꼴라레회원들을 '마리아의 활동'이라고 부르는데, 성모님처럼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포꼴라레회 사제로서 메주고리예의 영성을 어떻게 연결시켜야할지 늘 고심했었는데 이번 피정을 통해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 나는 메주고리예에 처음 왔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많은 메주고리예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사제로서 이곳

## 본당신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웠던 것은 이곳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께서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 아주 행복합니다. 나는 참으로 아름답고 조용한 이마을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녁 미사후의 성시간은 아주 단순했지만 내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번 피정은 기도의 영이 함께한 상당히 수준 높은 피정이었으며,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나의 사제직에 참으로 큰 의미와 사명감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음에 매우 만족합니다.

\*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성모님의 부르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은 함정이 아니라 그물이었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메주고리예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본당 신자에게 메주고리예에 대한 소책자를 하나 부탁했습니다. 얼마후에 그 신자는 내게 메주고리예에서 하는 국제 사제피정에 깐딸라 맷사 신부님께서 강사로 오신다는 공지문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는 깐딸라 맷사 신부님은 못오시고 이곳에 올 계획이 없던 나는 지금 메주고리예에 와있습니다. 이번 사제피정을 통해 느낀 것은 당신 아드님의 은총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성모님과 함께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사목하고 있는 본당의 한 냉담자가 메주고리예를 방문하고 신앙을 새롭게 얻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메주고리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느님과 더욱 깊이 있고 친밀하게 재내는 사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우선 나의 기도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는것이 무척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성령의 활동은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을 바꾸는 것을 좋아하시나봅니다. 이 사제피정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은 신자들을 변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기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길을 지향하고 기도하는 사제가 된다면 그들도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나는 이번 사제 피정이 세 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 토미슬라브 이반치치 신부님께서 강연을 맡아주셔서 무척 만족합니다. 삼 년 전의 사제 피정에서 신부님의 강연을 들은 후,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번 피정에는 특

별한 기도지향을 갖고 참여했는데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귀기울여 주실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반 치치 교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내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작년부터 이 사제피정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정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모님의 현존하심이 느껴지는 이 마을이 참으로 좋아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매 년 두 서너 번 씩 메주고리예를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 교구의 주교님을 모시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30여번 넘게 메주고리예를 왔었으며 순례자들과는 5~6번 정도입니다. 이반치치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누가 이번 피정의 강연을 해주셨을 지 알 수 없지만,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신부님의 강연 주제는 매우 흥미로웠으며 특히 현대문명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사제로서 신부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무척 기쁩니다.

\* 인간의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이반치치 교수님의 강연에 아주 만족합니다. 우리 사제들의 소명은 보편적인 시각과 지향으로 세상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이번은 내가 3번째로 참여하는 메주고리예의 사제피정입니다. 피정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하심과 강렬하게 활동하시는 성령의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미사전례와 성시간에 참여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당으로 돌아가면 메주고리예에서의 체험이 나의 사제직에 보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



## 온 세상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듣게 될까요?

( 발현 목격증인 마리야 파블로비치 - 2 - )

마리야 파블로비치는 1981년 6월부터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6명의 발현목격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를 기도, 믿음, 회개, 보속 그리고 평화로 초대하시는 평화의 모후 성모님께서는 1984년 1월부터 매달 25일에 마리야를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주고 계신다.

질 문 : 복되신 성모님께서 2000년 전, 자신의 삶을 알려주셨다고요?

마리야 : 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생애를 어느 때는 상세하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때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질 문 : 복되신 성모님의 삶을 알고 난 후, 당신이 시련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마리야 : 네. 대단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많은 고통들은 성모님께서 참고 견디셨던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질 문 : 성모님께서 지상에 사실 때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으셨지요?

마리야 :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신비의 일부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심한 고통 중에도 항상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것보다 하느님을 훨씬 더 잘 아셨으며 언제나 풍요로운 하느님의 혼 안에 계셨습니다.

질 문 : 어떻게 성모님께서 우리보다 하느님을 더 잘 알고 계신지 아시나요?

마리야 :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죄 때문입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을 맑게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질 문 : 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요?

마리야 : 죄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죄는 사랑과 선행, 그리고 기쁨과 풍요로움의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습니다.

질 문 :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마리야 :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현명하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지요.

질 문 : 요즈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야 : 성모님께서는 죄로 인한 어둠이 마치 구름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 문 :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야 : 기도와 단식, 회개, 고백성사와 미사에 자주 참여하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지상의 모든 이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빛과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하느님 왕국을 이땅 위에 다시 세우시려는 메주고리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 저의 고통들은 성모님께서 참고 견디셨던 고통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질 문 :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마리야 : 네. 전 세계에서 다른 신앙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복되신 성모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온 세상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까요?

마리야 : 이 메시지를 지구의 가장 먼 곳까지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질 문 : 마리야,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을 아시죠?

마리야 :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아주 작은 씨앗 하나씩을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의 마음 속에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씨앗은 이제 병들고 굶주린 이들의 그늘 이 되고 안식처가 되어서 그들이 천국을 향한 여정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만큼 그 마음 안에서 큰 나무로 성장하였다고 복되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 문 :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말씀이군요. 마리야, 그 충실한 자녀들이란 누구죠?

마리야 :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질 문 : 비초카의 말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여섯 명의 증인들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마리야 : 성모님의 충실한 자녀들이 벌써 성모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어요. 더 많은 자녀들이 메주고리예로 올 것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질 문 :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고통을 덜 받는 걸까요?

마리야 : 그들은 다른 형태의 고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자녀들은 누구나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로부터 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모든 고통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 문 : 어떻게 복되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마리야 :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질 문 : 예수님보다도요?

마리야 :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느님이십니다. 천주 성삼께서 나자렛의 동정녀 마리아를 그토록 신뢰하셨기에 하느님의 아드님을 그분의 태중에서 기르도록 맡겨드렸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나약하고 박해 받는, 가진 것 없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을 가시고 갖은 정성을 다해 보살피며 교육을 시키시고 키우셨지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그 성모님을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안에 보내시어 우리가 당신 아드님을 맞이할 충실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질 문 :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건가요?

마리야 : 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 분은 부활하셨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혼존하시고 계십니다. M

<Visions of The Children / 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예의 성모마리아에서 발췌>

# 요조 신부님과 함께 하는 치유의 피정과 메주고리예순례

"미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거룩한 성사입니다.  
제대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양팔을 크게 벌리고 계신 성부의 품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지향들을  
성체와 성혈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께 봉헌하십시오.

성모님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은총의 바다이십니다.  
묵주기도는 이 은총을 공급받는 수로입니다.  
당신의 삶속에 있는  
영육간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그 분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평화의 모후 이신 성모님과 함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묵주기도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치유시켜 줄것입니다."

(2005년 11월 요조 신부님과의 피정 강론중에서...)

- 피 정 지 도 : 요조 조브코 신부
- 한국어통역 : 남기옥 마르타
- 피 정 장 소 : 요조신부님의 성 가정 여자 고아원
- 순 례 지 : 메주고리예 및 드브로브닉
- 순 례 지 도 : 김 알퐁소 신부 (메리놀 수도원)
- 순 례 안 내 : 남그레고리오
- 일      시 : 2007년 11월 28일 부터 12월 9일 (11박 12일)  
문      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610-366-9612 Cell. 917-626-4314  
E-mail : qpmm.org@gmail.com

## 사랑하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

의명의 순례자

2007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천주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지 23년째 되는 해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교리 공부를 할 때부터 대모님은 제게 묵주기도를 가르치며 성모님을 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고국을 떠나 낯선 미국에 왔지만 이민 생활은 제가 꿈꾸어 오던 행복한 보금자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든 이민 초기의 하루 하루를 저는 손에 묵주를 들고 살았습니다. 54일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간절한 느낌도, 예수님의 내 곁에 계신다는 체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날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묵주를 손에 쥐고 그 힘으로 살아 온 20여 년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살아 온 제가 측은해 보이셨는지 2005년 11월 저를 메주고리예로 불러 주셨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메주고리예에 왔건만 기대가 너무 컼었는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느낌도 없이 지루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째 되는 날 새벽에 자매님 몇몇 분들과 함께 발현산에 올라가다가 문득 성모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현산에 모셔져 있는 성모님 앞으로 다가갔는데, 역시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하시며 나를 부르고 계시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의 착각이겠지?' 혼자 질문하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성모님 상 앞으로 가까이 갔을 때, 다정하신 엄마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 아들 예수와 엄마인 나는 항상 너를 부르고 있었단다. 그러나 너는 세상 한 복판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네 위주로만 사느라고 너를 부르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란다. 우리는 항상 네 곁에 함께 있었단다." 하시며 그 동안 살아 온 모든 일들을 잊고 엄마의 품에서 푹 쉬라고 안아 주시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그 자체가 엄마

의 목소리라고... 나는 그곳에 있는 동안 성체의 기적과 태양의 움직임 등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토마의 불신양이랄까요? 그런 것을 보아서 좋은 마음보다는 '성모님이 보시기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면 이렇게 들려주고 보여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주고리예를 떠나야 하는 날 마치 엄마의 품을 떠나는 것처럼 많은 아쉬움을 안고 사랑하는 남편과 세 아이들이 기다리는 나의 보금자리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즈음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는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어머니께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쭈어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 드리며 세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매일 어머니 마리아께서 빌어주시는 은총을 느끼며 묵주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과 예수님의 혼존하심을 느끼며 나의 삶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묵주를 손에 잡고 있으면 마치 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손을 잡고 있는 듯이 행복합니다. "어머니,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 주셔서 이토록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빌어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마음을 고백하면,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성모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M

###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발 행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 도 신 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서울 대교구)

자 문 위 원 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한 국 지 부 장 : 박연자 안젤라

편 집 부 장 : 최성득

편 집 위 원 : 최 레지나,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 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동방인쇄

#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영혼아!

## 18년동안 감옥살이를 하던 죄수의 체험기 (1)

나는 살인, 살인교수, 강도, 폭행, 탈옥 등의 죄목으로 18년 동안 감옥에서 살고 있다. 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저지르며, 나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그 18년이 다 채워지던 어느 날, 살인 미수죄로부터 두 달 남짓 집행유예 출옥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나는 미국 서부 테네시 주 교도소에서 1988년 봄을 맞이하였다. 그 날 오후 점호 시간에 나는 감방 동료수와 함께 잠시 공영 TV 방송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여섯명의 어린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윗쪽을 응시하면서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 듯 했으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중에 말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영어가 아니어서 알아 들을 수 없었다. 해설자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말을 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멀리했던 나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 말의 뜻 조차도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나는 동료수와 함께 교도소 뒷 틀을 걷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 속에 거닐고 있던 나는 갑자기 어떤 힘이 위에서 누르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은 예리한 통증과 매우 불쾌하고 답답한 그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압박 때문에 옆에 있던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저 앞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끝없이 지속되는 것 같기도 했고 한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천국은 평화가 가득찬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 있으며 가출옥이나 보석이 없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 끝없이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나는 하느님의 정의의 빛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곧 지옥으로 떨어질 찰나에 있음 보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향하는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천국쪽을 택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더욱 겁에 질리고 있었다.

다시 한 번 천국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향해 갈 수가 없었다. 내가 진심으로 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구부려 천국쪽으로 향하게 하려고 시도해 본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내가 지금과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행이라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다. 나의 유일한 선택은 지옥을 향하던 그동안의 삶을 버리고 천국을 향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숨이 막힐 것만 같이 두려웠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치 쓰레기가 가득찬 큰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을 하듯이 세속적인 나의 우상들과 모든 죄악을 버리고자 애썼다. 그러자 그 죄악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나를 누르던 그 압박들이 사라지면서 육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갑자기 진실하고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 며칠 동안 깊은 평화를 조금씩 체험할 수 있었다. 조금씩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어렸을 적 외웠던 몇 가지 기도들을 드렸다. 나는 매주 목요일 교도소에 오시는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받고 참으로 오랫만에 영성체를 하였으며, 가능하

## 나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모든 마약들을 끊었다.

면 미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내 감방 벽에는 오래전에 누가 나에게 주었던, 때에 절은 묵주가 걸려 있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교도소 안에서 내가 복용하고 있던 모든 마약을 버리게 되었다.

6월 29일 나는 살인혐의로 받은 30년 형량 보석 집행 유예의 위반으로 남부 뉴저지 주 교도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18년 전에 내가 전기의자 사형을 간신히 모면하였던, 규모가 큰 교도소이다. 나는 여기서도 신부님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미사에 참석했다. 어느 토요일, 가톨릭 평화의 모후 봉사단이 강당에서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이때 나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영적으로 많이 미숙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법을 위반하면 벌을 주는 경찰처럼 하느님도 지옥을 향해 달리고 있던 나에게 장애물을 던져서 나를 죽이시는 분으로만 알았었다. 고해성사를 보았어도 내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즉시 번개같이 내 목을 읊어 죄는 분으로만 생각하며 두려워했다. 나는 묵주기도와 다른 염경기도를 바치고, 가톨릭 평화의 모후 봉사단 모임에 참석하면 두려운 하느님으로부터의 벌을 피할 수 있는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묵주의 기도를 바치고 방을 나오려 할 때, 우리에게 묵주와 상본 등 성물과 과자가 든 봉지를 나누어 주던 봉사자 중 한 자매가 나에게 신문 한장을 주었다. 그것은 웨인 와이블씨가 쓴 '메주고리예의 기적'이라는 신문이었다. 나는 그것을 갖고 돌아와 읽었으나 성모님의 발현이나 복되신 성모님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신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일곱 번씩 바치고, 연옥 영혼들의 안식을 위해 뺑과 물만으로 단식하라는 것들은 실천해보고 싶었다. 또 하나 나의 관심을 끈 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셨다는 "너희 마음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여라." 는 성모님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줄 몰랐던 나는 당연히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묵주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성



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 낙이 있다면 전쟁, 마약, 범죄행위, 여자에 대하여 이야기 꽂을 피울 때이다. 수감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체험이기를 바라며 흥미롭게 열정적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런 대화에 관심이 없어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았다. 사실 범죄자들이 모인 교도소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자 노력할 때 나는 조금씩 그분의 현존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동료 수감자들과 체험을 나눌 때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고 계심을 느낄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감옥 울타리 안에서 마치 죽은 시체들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서성대고 있는 동료 수감자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다. 나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억지로라도 알게 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나는 용기를 내어서 수요일과 금요일만이 아니라 하루를

더 추가하여 단식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지향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좋아하는 것을 봉헌하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희생과 기도를 바쳤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두려움에서가 아닌, 사랑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께서는 메주고리예를 향해 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어느 날 영적지도를 해주시는 휴이트 신부님이 웨인 와이블씨가 발행하는 신문을 갖다 주셨다. 나는 그 신문을 감방안에서 읽고 또 읽으며, 메주고리예와 복되신 성모님께 온통 심취 되었다. 그리고 성모님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시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초대하시는 어머니이심을 믿었다. 어린 발현목격증인들이 성모님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는 성모님의 그 아름다우신 눈이 쓰레기 같은 내 영혼을 깨뚫

## "너희 마음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여라."



어 주셔서 내 마음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께 대한 모든 두려움을 영원히 몰아내 주시기를 바랬다. 나는 메주고리예를 믿었다. 신부님은 메주고리예 순례 때에 수 많은 사람들이 깊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직접 목격하였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교회의 결정에 맡긴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음주에 또 메주고리예 순례를 가신다고 하셨다. 나는 내가 메주고리예 순례를 가는 것이 불가능하니 그대신 무엇인가 축성을 받아 간직하고 싶었다. 그때 1981년 내가 플로리다에서 죄 중에 살 때, 어머니가 보내 준 갈멜산 성모님의 갈색 스카풀라가 생각났다. 그 당시 나는 스카풀라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이것을 착용하고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겪지 않을 것' 이라고 쓰여 있었고 또, 그것을 보내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줄이 끊어졌지만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오신 휴이트 신부님은 발현목격증인 비츠카가 내 스카풀라를 손에 들고 기도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스카풀라의 끊어진 줄을 다시 연결한 후에 다시 한번 신부님의 축성을 받아 목에 걸면서 내 안에서 성모님께 대한 사랑의 힘이 솟아 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모든 말과 생각, 행동을 성모님께 다 바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교도소내에서 나와 사이가 나빴던 재소자들을 복되신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은 지향으로 인내심을 갖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그들을 대하였다. 성모님께 대한 나의 사

랑과 이곳에도 하느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그들과 나누고 싶었지만, 나는 그들과 같은 죄수에 불과했다. 가끔 동료 몇 명을 억지로 미사와 평화의 모후 기도회에 참석 시켜서 함께 묵주 기도를 해보았지만 그들은 중간에 없어 지곤 하였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직 익숙치 않았으나, 조금씩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길을 걷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서 내가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때 평화의 모후 기도회 자매들이 나에게 지향을 가지고 드리는 9일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 중 하나가 성 요셉께 바치는 9일기도였다. 마침 나의 세례명이 요셉이고, 직업도 목수였기에 나는 요셉 성인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9일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마지막 날이 공교롭게도 성요셉의 축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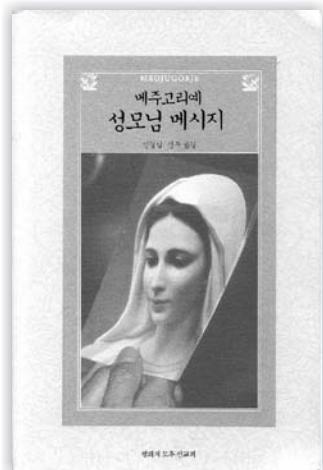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평화의 모후 기도회 그룹에 보내 온 책들 속에서 나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로'라는 소 책자를 발견했다. 그 책은 온통 고전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나는 이 책을 손에서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마치 책이 나에게 '이것을 읽어라'하고 명령하는 것 같았다. 책의 첫 장은 '마리아의 비밀'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 마리아의 사랑의 거룩한 노예에 대한 교의였다. 나는 성 루도비꼬 마리아라는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내 9일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자 나의 영혼은 용솟음치고 있는 듯 했다. 그 책의 첫 줄을 읽었을 때, 내 온몸의 모든 감각이 일어서는 극한 감정의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이 들렸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영혼아, 나는 옛날이건, 지금이건 그 어느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 책을 더 읽기 전에 너는 무릎을 끓고 '아베 마리스 스텔라' 기도와 '성령 송가' 기도를 바치거라."

나는 이런 기도를 알지 못했지만, 책의 뒷페이지에서 이 기도문을 발견했다. 나는 감방 안에 동료가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즉시 무릎을 끓고 그 기도문들을 읽어 내려갔다. 이 책은 틀림없이 성 요셉의 전구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나의 마음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쌓이는 것 같이 뜨거워졌다. 나는 이 책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나를 성모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www.torch.op.org](http://www.torch.op.org)

##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당신의 메시지를 읽고, 실천하며,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부분적으로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성모님의 바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된 메시지 모음집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번역을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84년부터 지금까지 성모님께서 주고 계시는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큰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번역을 시작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말로 된 '메주고리예 성모님 메시지' 책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손쉽게 읽고 묵상하며 실천에 옮김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의 모범을 통해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 신경남 스테파노 -

##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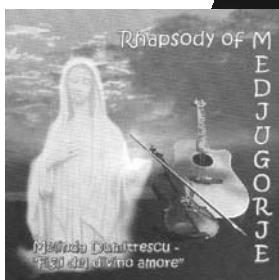


이 음악에는 성모님과 함께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흡송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성시간 노래와 음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와 음악들이 간단한 가사와 짧고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흡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목상과 단체 성시간, 그리고 각종 피정과 교육시 유용한 음악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예 서적 보급
-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흡송하여라'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번역/ 신경남신부



###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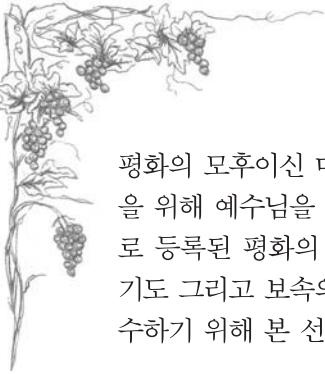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오로 딸 및 성바오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어머니 마을로 이사 했습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y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 Fax. 610-366-9614 • qpmm.or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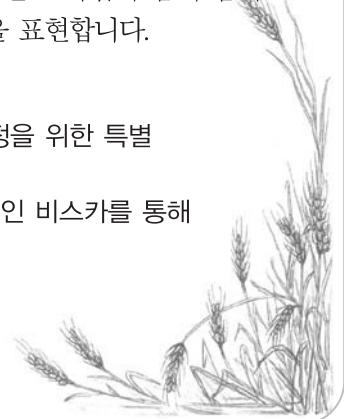
##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예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예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예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예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예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회원번호( )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매달 메시지와 소식지를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선교회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강헬레나, 권혁구, 김갑식, 김건일, 김경희, 김금성,  
김금순, 김마데라, 김만춘, 김명주, 김봉희, 김성주, 김소영,  
김시순, 김아그네스, 김아네스, 김옥희, 김영임, 김주희, 김준홍,  
김정선, 김태자, 김학실, 김혜정, 김효정, 노마리아, 류수연,  
마헬렌, 문방자, 민정숙, 민헬레나, 변시몬, 박병칠, 박연희,  
박혜정, 백안셀모, 서진희, 성문선, 손난영, 송정순, 신순덕, 엄경숙,  
엄봉화, 여애경, 오경옥, 오순옥, 오미정, 유대수, 유광문, 유베로니카,  
유애영, 유옥희, 윤경만, 윤경이, 윤희마리아, 이계숙, 이동우, 이메리,  
이마리아, 이미애, 이소피아, 이아네스, 이윤영, 이은경, 이은지,  
이정옥, 이진민, 이현숙, 임베로니카, 임호균, 임효경, 장민화,  
장숙영, 장지혜, 잔슨윤숙, 전득기, 전문숙, 전현숙, 정근호, 정명화,  
정숙, 조안나, 지현남, 최동원, 최동숙, 최루시아, 최바르바라,  
최영자, 최윤경, 최윤희, 최종금, 표상순, 하데레사, 한병주,  
한파스칼리나, 황계자, 황정애, 황혜정, 허율리아나, 홍경복,  
홍지영, 익명.

Fairview Cleaners, Y. Lee, Elly S. Sunwoo, Y. L, Mee R. Kang,  
Joo D. Kim, Mary Lee, Tak U. Lee, Henry Yerger, Angela Fashion,  
Shi Bong & Kyoung Kim, Cho Eileen, Okson Baker,

매일 미사를 통하여 전해지던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매달 메시지가 중단되었으나,  
차후 대안으로 소식지와 함께 성모님의 메시지를 격월로 발송하오니  
받고자 하시는 분은 선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모후선교회가 성모님의 매달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40호 후원금	\$11,588.00
지출 :	
8월달 성모님 메시지 개인 발송	
40호 소식지 인쇄, 발송,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14,730.00
부족액	- \$ 3,142.00



여러분은  
왜 걱정하십니까?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알고 허락하시는 일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모르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이신 원죄없으신 성모님은  
항상 우리들을 자애로 감싸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더욱 더 완전히 성모님께 몸을 맡겨서  
그분께서 즐기시는 곳으로 인도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의무를 철저히 완수하면  
우리는 사랑으로써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모두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차례입니다.

(막시밀리안 콜배 성인)

**USA**

## 남 마카엘라

P.O. Box 230, Albrightsi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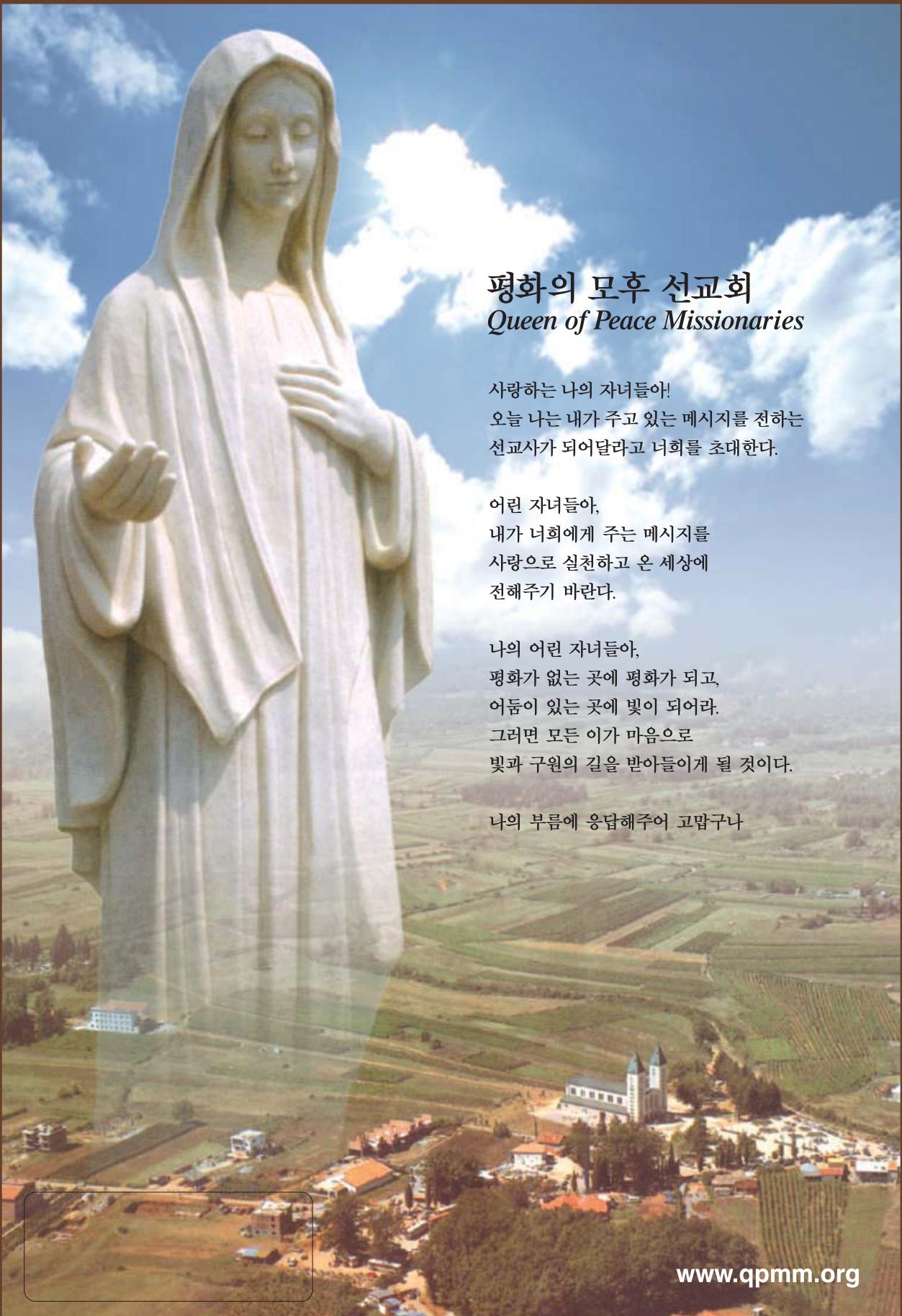
## 어 앤젤라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헌양빌딩 B 1  
Tel. 017-785-3535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 이준용 콜비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http://www.qpmm.org)